

정계 복귀-권력 견제...아시아 90대 老정객들 살아있네

아시아 '90대 원로 정치인' 5명

					
	장쩌민(91)	마하티르 모하맛(92)	리덩후이(94)	무라야마 도미이치(93)	김종필(91)
국가(지역)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일본	한국
과거 주요 직위	총서기 및 국가주석	총리	총통	총리	두 차례 총리(6년), 7선 의원, 자민련 총재
특징 및 주요 업적	20여 년간 최고 실력자로 군림. '3개 대표론'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 정착	22년 3개월간 총리 지냄. 외과 의사 출신으로 말레이시아 근대화 견인	대만 출신 첫 총통(12년 4개월 재직). 대만 독립 및 친일 성향 뚜렷함. 총통 직선제 등 민주화 초석	1995년 식민 지배 반성 '무라야마 담화' 발표	개발 독재 시대의 산업화 근대화에 역할
최근 근황	상하이방 막후 실력자. 건강이상설 자주 거론	7월 정계 복귀 선언. 내년 중반 총선 총리 도전	개헌 주장 등 정치적 견해 발표. 건강 쇠약	아베 신조 총리의 위안부 사죄 촉구 등 한일 우호 증진 활동	대선 예비 후보 등 정치인 면담하며 존재감 유지

14년만에 돌아온 마하티르 前총리 “야당대표로 내년 총선 승리 앞장”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모하맛 전 총리(92)는 총리에서 물러난 지 14년 만에 올해 7월 정계 복귀를 전격 선언했다. 18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상반기 총선에서 야당 대표로 출마해 나집 라자크 총리를 실각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장쩌민(江澤民·91) 전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 달 18일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개막을 앞두고 자기 계파 인물들을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에 앉히기 위해 막후 영향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 주요국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90대 주요 원로 정객들이 여전히 존재감을 과시하며 활동하고 있다. 은퇴 시기를 훨씬 넘긴 노(老)정객들이 다시 현실 정치에 뛰어

드는 이유는 제각각이다.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전 총리는 최근 인터뷰에서 “말레이시아의 명성을 되찾는 게 목표”라고 정계 복귀 이유를 밝혔다. 마하티르 전 총리가 실각시키겠다고 공언한 나집 총리는 국영투자회사 1MDB를 통해 10억 달러(약 1조1275억 원)가량의 비자금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퇴진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나집 총리와 양아들 리자 아지즈가 1MDB 국부펀드로부터 각각 6억81만 달러, 2억38만 달러를 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1981년부터 2003년까지 22년간 총리를 지내며 근대화를 이끌었던 마하티르 전 총리는 7월 ‘신야권연합 희망연대(PH)’의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정치 무대로 화려하게 돌아왔다.

중국의 장 전 주석은 톈안먼(天安門) 사태 직후인 1989년 6월 덩샤오핑(鄧小平)에 의해 총서기에 전격 발탁된 후 2002년까지 총서기를 지냈다. 그는 후진타오(胡錦濤) 주

석이 집권한 후에도 중앙군사위 주석을 3년가량 더 맡았고, 자신의 측근들을 정치국 상무위원과 군사위 부주석에 심어 뒀다. 그는 20년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며 주요 정치 계파 중 하나인 ‘상하이방(上海幫)’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시진핑(習近平) 정부 5년간 진행된 반부패 사정(司正)으로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앙정법위 서기 등 수족들이 잘려 나갔다. 이번 당대회에서 한정(韓正) 상하이 서기 한 명이 남으면 다행인 처지가 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상하이방 맹주’로 시 주석의 1인 지배 체제 강화를 견제하는 데 막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건강이상설이 나오자 5월 말 자신의 장남 장형(江綿恒)이 총장으로 있는 상하이과기대를 공개리에 방문해 건재를 과시하기도 했다. 올해 8월에 열린 중국 전현직 지도자들의 비밀 회동인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에서도 시 주석 권력 확대 견제에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대만의 리덩후이(李登輝·94) 전 총통은 장제스(蔣介石) 장징궈(蔣經國) 부자의 장기 집권에 이어 1988년 대만에서 태어난 본성인(本省人)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총통이 됐다. 총통 직선제 도입 등 민주화의 초석을 닦았으며 대만 독립 노선을 분명히 했다. 그의 노선에 반대했던 중국은 1996년 총통 선거 당시 대만해협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시위를 벌였다. 그의 재선을 막기 위해서였지만 결과는 재선 성공이었다.

2000년 퇴임 이후 조용히 지내던 그는 최근 보다 자주적인 대만의 위상을 세우기 위한 헌법 개정을 주창하는 등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리덩후이 기금회’ 주도로 ‘헌법 지금 바꾸자’라는 사이트도 열었다.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93) 전 총리는 1995년 총리 재직 당시 제2차 세계대전 전후 50년을 맞아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를 표현한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올해 5월 제주포럼에 참석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한일 우호 관

계 복원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종필 전 총리(91)는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선 예비 후보 여야 정치인의 예방을 받아 ‘정치 9단’으로서 훈수를 하며 ‘3김 시대’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양의 90대 정치 지도자로는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93)이 대표적으로 건재한 사례로 꼽힌다.

〈2017.9.20일자 동아일보 전재〉

유용태 회장 등 헌정회장단 내방

유용태 헌정회 회장을 비롯하여 김종기, 김동주, 황학성 부회장 등 헌정회 회장단이 지난 9월 22일 김종필 전 총리를 예방하고 환담을 나누었다. 건강 등을 화제로 덕담을 나누며 9월 20일자 동아일보에 난 “아시아 90대 노정객 살아있네”라는 기사를 떠올리며 “헌정회 회원들에게도 많은 훈수를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김진봉 재단 이사장이 배석하였다.



오른쪽부터 김진봉 재단이사장, 황학수 부회장, 유용태회장, 김종기 부회장, 김동주 헌정회 사무총장,

♡ 후원회 계좌 구좌번호 ♡

KEB하나은행 262-910016-32504 (재)윤정재단

NH농협은행 301-0185-9589-91 (재)윤정재단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기증특별전에 김종필 국무총리 관련 필름 33종 전시



역사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영사기록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최 기증특별전 2013-2016 ‘아름다운 공유’에서 ‘김종필 국무총리 방미 필름’ 등 33종이 전시되고 있다. 지난 8월7일 개막하여 금년 연말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 영사기록물들은 국립영화제작소 기증분을 포함하여 운정재단이 보관하고 있었던 필름이다. 운정재단 신문영 사무총장은 영사물들을 자체에서 보관, 관리하기 보다는 역사박물관에 기증함으로써 국가적 기록물로 보다 유용하게 활용하게 할 목적으로 2015년에 기증하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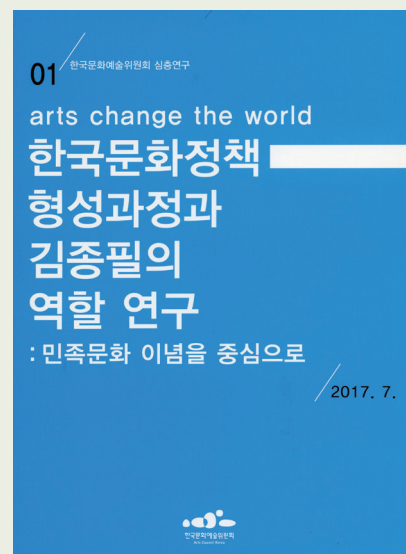
전시 영사기록물은 다음과 같다.

‘김종필 국무총리 이란 방문’ 필름(1971년)
 ‘국무총리 방월 기록영화’ 필름(1971년)
 ‘5.16민족상’ 필름(1967년)
 ‘1967년도 국군의 날 에어쇼’ 필름(1967년)
 ‘김종필 국무총리 방미’ 필름 2편(1973년)
 ‘박영옥여사 스페인 방문’ 필름 2편(1973년)
 ‘조국의 방패’ 필름, ‘보람찬 조국’ 필름, ‘팔도강산’ 3편, 이 외 김종필 관련 필름 19편

"한국문화정책 형성과정과 김종필의 역할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층연구서(제1호) 발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 7월 “한국문화정책 형성과정과 김종필의 역할 연구 : 민족문화 이념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심층연구 제1호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연구서는 본문 172면과 참고문헌, 현장 인터뷰 40면으로 구성되어, 제1장 서론으로 시작하여 제2장 민족문화 이념 전개와 일제 강점기 문화예술, 제3장 해방 이후 문화정책과 민족문화, 제4장 5.16이후 문화정책과 민족문화, 제5장 근대화 시기의 문화정책과 김종필, 제6장 논의를 마치면서 편으로 짜여졌다. 특히 제4장에서 당시 군사정부시 실세로서 그리고 국무총리 시절에 윤정이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기록과 증언으로 밝히고 있으며, 제5장에서 구체적으로 ‘김종필과 국제음악제’ ‘예그린악단 창단’ ‘애국선열조상 건립’ ‘민족기록화사업’ 등의 사업 추진 배경과 ‘김종필과 문화예술’을 통해 윤정의 문화예술에 대한 조예와 업적을 기술하고 있다.



나카소네 히로부미 일본 참의원 의원 청구동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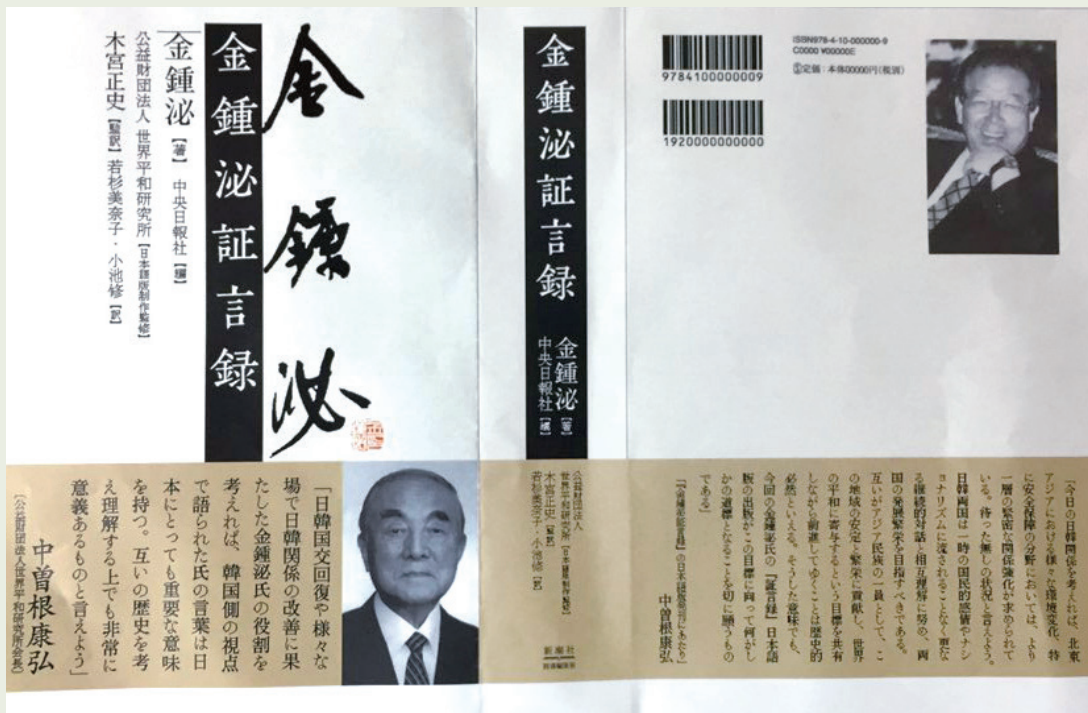
지난 9월 24일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일본 수상의 장남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일본 참의원 의원이 청구동으로 김종필 전 총리를 예방하였다. 나카소네 히로후미 의원의 이번 방한은 지난 5월 27일로 99세(1918년생)를 맞이한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대신의 백수연白壽宴에 축하의 뜻을 표한 운정에게 아버지를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답례 방문이었다. 이 자리에는 와다나베 히데오(渡邊秀英) 일한친선협회 회장과 이대순 한일친선협회 부회장이 동행하였다.

와다나베 일한친선협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중앙일보에서 출간된 김종필 증언록의 일본어판이 출판되어 금명간 일본 현지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질 예정이



왼쪽부터 이대순부회장, 나카소네 히로후미 참의원, 운정, 와다나베 히데오 회장

라며 축하모임에 저자께서 직접 참석해 자리를 빛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다. 김종필증언록의 일본어판은 공익법인 세계평화연구소가 한국어판이 나온 직후부터 착수하여 1년여에 걸친 번역작업 끝에 완성하여 이번에 출판을 하게 된 것이다.



오는 11월 일본에서 출간되는 '김종필증언록' 겉 표지. 일본어판은 나카소네가 회장으로 있는 일본 공익법인 세계평화연구소가 번역하여 출간하게 되었다.